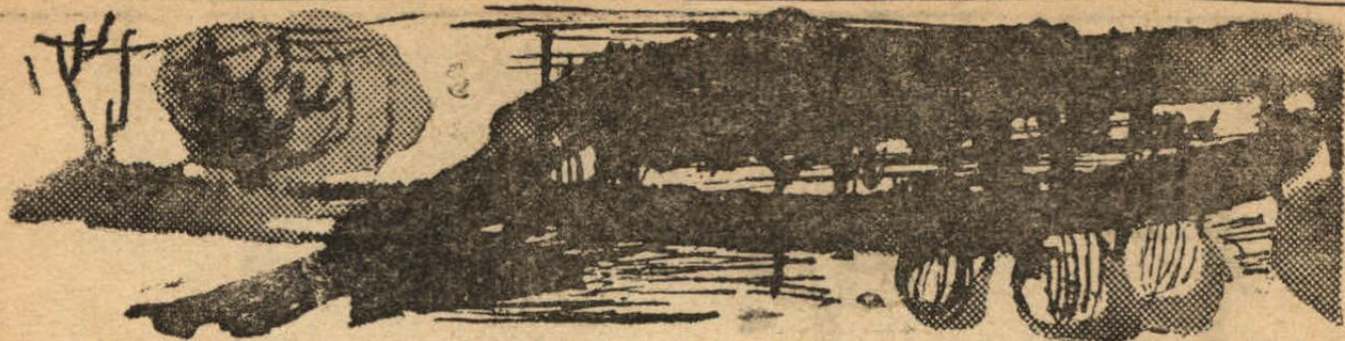




<卷頭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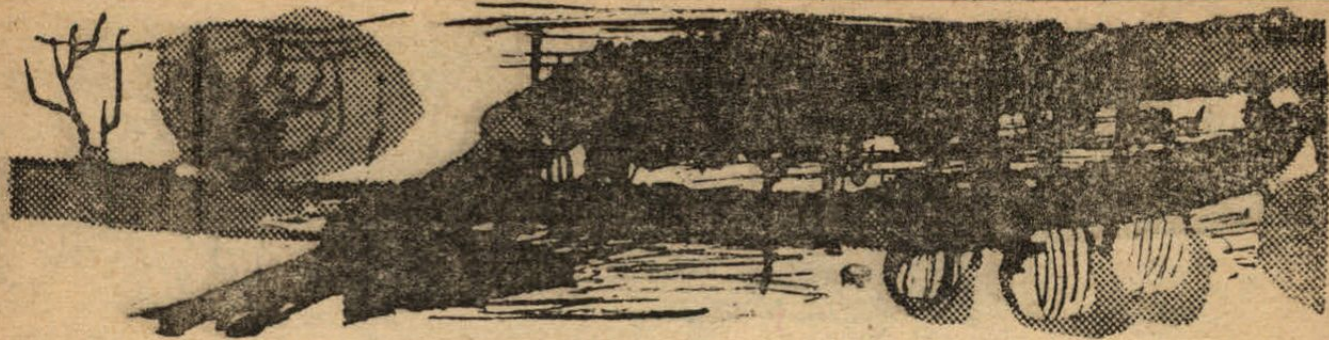
飛躍을

교 장 李 東 旭

미국으로 떠나는 친구들을 전송하기 위하여 김포공항에 갔던 일이 몇 번 있었다. 폭음 소리도 요란하게 그 커다란 제트 여객기가 창공을 향하여 높이 높이 떠오르는 그 장쾌한 모습을 쳐다보면서 가슴 후련한 생각에 잠겨 자신을 잊어버리곤 했다. 아무 거침도 없이 그야말로 미끄러지듯 솟아 올라가는 그 상쾌한 치솟음은 무어라고 형용할 수가 없다. 정말 거칠 데가 없었다.

나이 아홉 어렸을 때 가끔 철로길을 따라서 걸어 본 적이 있었다. 철로길은 끝없이 끝없이 뻗어 가기만 하였다. 그 철로를 따라 걷노라면 피곤한 줄도 모르고 마냥 걸어가게만 된다. 한없이 한없이 전개 마련이다. 먼 곳에 있는 그 어느 곳에 분명히 나를 반갑게 맞이하여 줄 아름다움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가슴 부풀은 절음을 걸었었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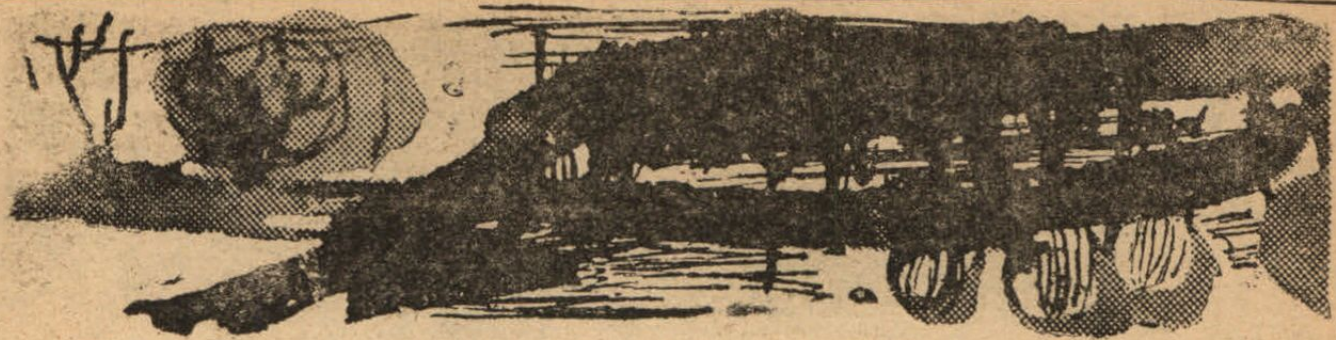
남해안 어느 섬에서 三년간 조그마한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을 때의 일이다.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보곤 했다. 날씨가 맑고 잔잔한 날이면 그냥 노를 저어서 멀리 끝없는 수평선을 향해서 무한히 가고 싶은 마음을 누를 길이 없었다. 끝없이 뻗어나간 수평선 저 너머에 분명히 나를 기다리고 있을 복지가 있을 것 같아 그냥 가고만 싶은 가없는 수평선에 큰 매력을 느끼곤 했다.



나는 이 이야기들을 어린 소녀들의 쉼터로서 되새겨 보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끝없는 하늘로 뻗어 가는 그 켄트 비행기처럼, 그 끝없이 뻗어나간 두줄기 철로처럼, 또한 그 가없이 퍼져나간 수평선처럼 우리 학교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 소녀들의 자람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미끈하게 꾸김새 없이 자라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 데서 온 이야기들인 것이다.

너무도 우리의 자람에 장애가 많고 구속이 많고 또한 숨 막히는 듯한 이 각박한 세태 속에서 인성의 소녀들만은 좀 더 녀그럽게, 좀 더 순수하게, 좀 더 가없게, 좀 더 뻗어 올라갈 수 있게 자라도록 하게 하고 싶은 것이다. 보고 있노라면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다. 꿈을 꾸어 보다가는 소스라쳐 깨어나며 또 그 현실이 가슴을 누르고 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다.

그래도 이 장애물들을 우리 나름으로의 힘과 우리 나름으로의 노력으로서 제거해 보려고 애써본다. 그래서 이들의 자람을 막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들 그 안타까운 가슴들을 어루만져 줄 무엇을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해 본다. 항상 불안하고 항상 초조해 보이는 이들의 얼굴에 환하게 주름이 퍼질 무엇을 주고 싶어진다. 또 주어야 하겠다. 그 불안과 초조함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알고 싶다. 물론 그 원인중에는 교외생활 즉 이들의 가정을 둘러싼 사회환경이 준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안다. 또는 이들의 개성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자유와 사회가 주는 자유속에 살면서도 사실은 극히 부자유한 느낌을 정신적으로 느끼게 되는 이 정신적 불안의 요소는 이들의 생활 주



변에 꼭 차있다. 세대의 차이에서 오는 인생관의 너무도 넓은 간격, 철학 없는 사회가 안겨다 주는 가치관에 대한 의구, 너무도 급격한 사회상의 변동 등등은 이 젊은 가슴들 속에 항상 불안의 씨를 심어 주어 이들의 성장에 크나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속에서 이것들을 극복할 힘이 없는 소녀들의 그 무능과 무력이 항상 더구나 불완전한 개성을 높은 담으로 에워싸고 그 속에 집착해 버리므로서 보기에만 양전한 존재들을 만들어 버리곤 한다. 참 순수해야 할 것이 이중 삼중으로 묻혀 버리고 길에 있는 것은 그 있었던 흔적 뿐이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인가. 이들이 그 좁혀지고 굳게 잠겨진 그 마음의 문들을 활짝 열어 놓고 그 속이 밝고 깨끗해서 드나드는 이들에게 맑고도 투명한 청초함과 향기를 줄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겠는가.

하늘은 오늘도 맑게 개였다. 몇 점 흰구름이 가을 하늘을 수놓으려는 듯 곱게 자리를만 들고 있다. 무한히 높고 무한히 맑고나. 옛날 거닐던 그 철로는 오늘도 무한히 뻗어나가고 있으리라. 동심을 부르며 반짝이고 있을 것이다. 까맣까맣 멀리 보이는 수평선 위에 오늘도 돛단배들이 그 폭속으로 마냥 달려가고 있을 것이다. 한없이 쫓아가려는 듯.

나는 이 시간에도 이러한 불안과 초조가 뒤섞인 이 인성의 소녀들에게 또 한번 외치고 싶어진다. 몸부림치면서 외치고 싶다. 하늘을 보자고, 수평선을 보자고, 한없이 뻗어간 철로길을 보자고. 오늘 눈앞에 아물거리는 군상들 속에 너무 우리의 마음을 끌리게 하지 말자고. 너무도 자주 변하는 그 변화속에 나를 파묻어 버리지 말자고.



몽계 몽계 떠오른 흰 구름이 억수 같은 소나기를 쏟는 험한 날씨로 변하기도 할 것이다. 잔잔해 보이는 바다에서도 노도 광풍의 날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미끄러지듯한 레일 위에도 많은 욕된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런 일들을 알고서도 가고 싶은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소녀들에게도 권하고 싶다. 한없이 순수하게 꾸밈없이 뻗어 나가 달라고. 물론 하늘에 솟아 오르기 위한 정비는 완전해야지. 물론 넉넉한 기름과 식량이 배안에 준비가 되어야지. 물론 기술과 용의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야지. 소녀의 낭만적인 꿈만 가지고 가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런 것들을 갖추면서 무한히 성장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또 이 무한한 성장을 바라는 욕망은 더 큰 비약을 바라는 기도로 변화하기도 한다. 나사렛 작은 마을에서 인류의 무한한 비약을 바라며 가슴 태우던 그 젊은이의 가슴속에 불타던 불이 이 좁고도 좁은 가슴에도 옮겨져 있다고 하면 너무도 어리석은 말이라고 할가?

「인성」속에 이 불이 타고 있음을 보았으면 한다. 무한히 자라는 모습들이 우뚝 우뚝 보여지길 바란다. 아니 그 무한한 것들을 이미 잡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으면 한다. 이것은 지나친 욕심일까. 그렇게 맑고 그렇게 가없이 그렇게 끝없이 자라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저하는 욕망이 가슴속에 아물거린다.